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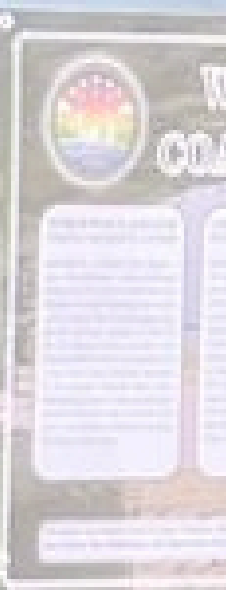
Tonga Cave - World War II Japanese Hospital

Songsong Village

통가 동굴 (Tonga Cave)은 1940년대 초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와 전후 시기에 일본 민간인과 군인들을 위한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로타 주민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태풍과 폭풍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이 동굴을 활용했습니다.

JAPANESE CANNON

日軍砲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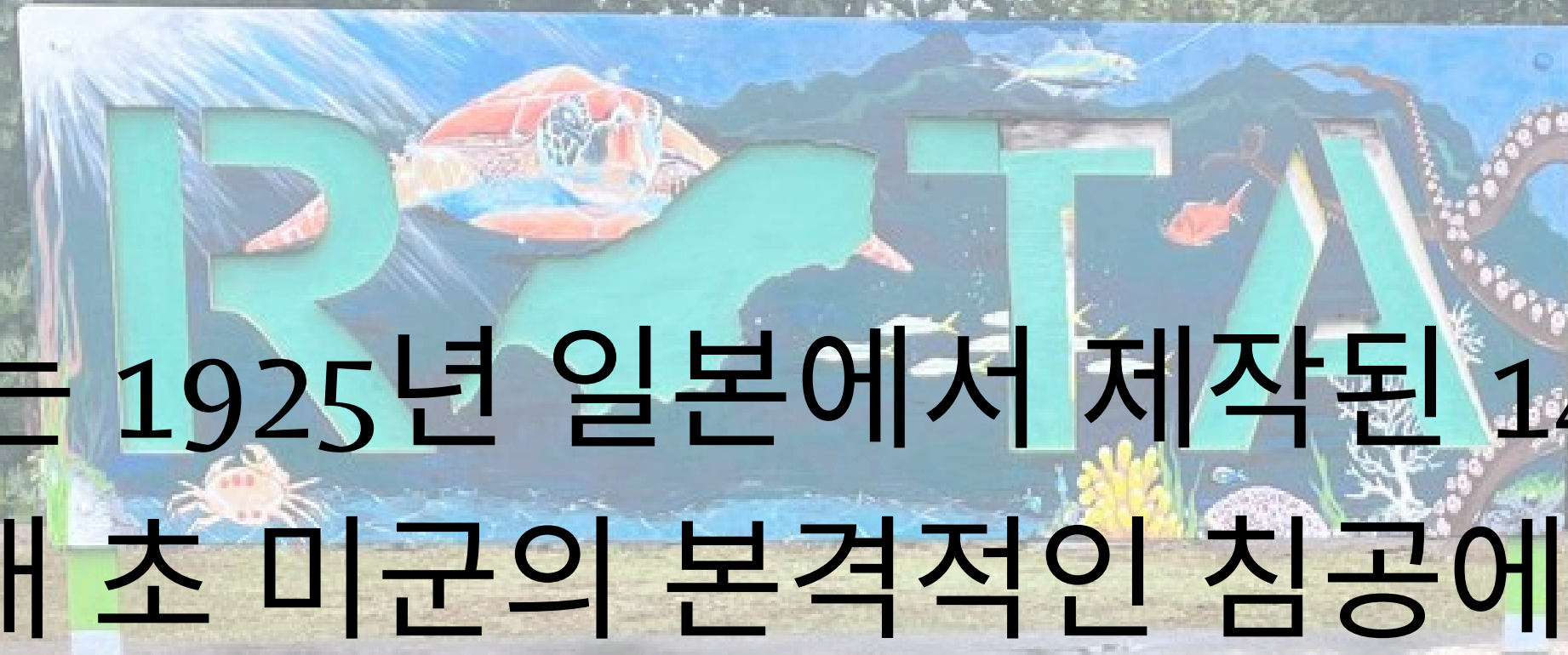
Spanish Colonial Government House

Songsong Village

이 건물은 1800년대 중반 스페인 식민지 시기 동안 스페인 시장 알카디 (Alkadi)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카사 레알 (Casa Real)’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던 중앙 행정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당시 스페인식 건축 양식과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특히 ‘맘포스테리아 (mamposteria)’라 불리는 석조 조적 방식이 특징입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Japanese Coastal Defense Gun

Ilek



이 대포는 1925년 일본에서 제작된 140mm 3형 모델입니다. 1940년대 초 미군의 본격적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제국군에 의해 반입되었습니다. 제국군이 사용한 소수의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미 해군 전함을 포격하기 위해 일본군 사산 하야 (Sasan Haya) 항구를 내려다보는 해안 절벽에 위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Ruins of Prewar Japanese Rectory

Tatachok

가장 존경받는 스페인계 예수회 신부 후안 폰스 (Juan Pons) 신부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0년대 초 일본 점령기 동안 이 사제관에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건물은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소수의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당시 차모로 주민들이 송송빌리지 사탕수수 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위해 타타촉 (Tatachok)으로 강제 이주당하던 시기의 유산입니다. 건축 구조는 대부분 스페인 식민지 시대 양식을 따르나, 자재 디자인은 일본 행정 시기의 영향을 받은 전환기적 건축물입니다.

Taga Ancient Latte Stone Quarry

As Nieves

고대 라테 채석장 (The Ancient Latte Quarry)은 마리아나 제도 내에서 라테 기둥과 상석의 대부분을 채석 당시의 원위치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채석장입니다. 이곳에는 총 9개의 기둥과 7개의 상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스페인 사람들의 점령과 이에 반발한 차모로족과의 전쟁으로 인해 채석 작업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장 큰 기둥의 무게는 약 35톤, 가장 큰 상석은 약 30톤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이 거석 라테들이 실제로 세워진다면 기둥과 상석을 합한 전체 높이는 약 7.6미터 (24피트)에 이르며, 이는 티니안 섬의 타가 하우스 (Taga House)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Ancient Latte Village

Mochong

모총 (Mochong) 유적지는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큰 라테 스톤 터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50개 이상의 개별 라테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지 안팎에서 유골, 맷돌, 다양한 생활도구와 어구, 그리고 대량의 민무늬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라테 스톤 마을터에서 약 3,000년 이상 정착과 거주가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테 스톤은 차모로인 (Chamorro)의 주거지뿐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건물인 우리타오 (Uritao)와 카누 보관소 같은 특수 건물의 기초 구조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라테 스톤은 차모로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Ancient Latte Village

Alaguan

알라구안 (Alaguan) 유적지는 마리아나 제도에서 발견된 라테 마을 중 기록상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라테 기둥과 상석을 포함해 총 60개의 라테 구조물과 24개의 돌절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묘지와 많은 매장품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유물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이 유적지에 약 2,000년 이상(서기 1442년 ~ 1630년)에 걸쳐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라구안 유적지에는 암채화 (바위에 그린 그림)와 암각화 (바위에 새긴 그림)가 있는 동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ncient Latte Village

Ma'ya

로타에 위치한 많은 라테 유적지 중 하나인 마야 (Ma'ya) 라테 터전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모총 (Mochong) 라테 마을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네 채의 라테 주거지와 함께 고대 도구들, 다량의 민무늬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주거지는 바다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해안선을 따라 분포한 대부분의 라테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Pictograph Cave

Chugai'

추가이 상형 문자 (Chugai' pictograph) 동굴은 마리아나 제도 내 고대 차모로 암석 예술 중 가장 인상적인 유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동굴 벽화들은 라테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쪽 벽면에는 약 90점에 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검정색, 짙은 회색, 갈색 안료로 그려졌으며, 이 안료는 새 배설물 ('구아누'라 불림), 나무 수액, 숯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림의 목적은 조상들과 소통으로, 즉 조상 숭배 의식의 일환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본 민간인과 군인들이 일시적으로 점거하여 사용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WWII Japanese Fortification Defensive Complex

Ginalangan

사령부 (Command Post)라고도 알려진 기날랑안 일본군 방어 진지는 로타에 위치한 군사 유적입니다. 1944년 7월, 사이판이 함락된 이후 일본 제국군은 새로운 방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유적은 그 전략의 흔적으로 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입니다.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사기를 꺾으며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펠렐리우,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에서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해안선을 방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방어선을 내륙 깊숙이 형성해 최후의 한사람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로타는 미군의 직접적인 침공이나 점령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기날랑안 방어 진지는 전쟁의 파괴를 비껴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의 종전 무렵 전략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존된 군사 유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rewar Japanese Sugar Mill Factory

Liyo' Songsong Village

남양흥발주식회사 (Nanyo Kohatsu Kabushiki Kaisha, 약칭 NKKK)는 1921년에 마리아나 제도에 진출한 이후, 이 지역 최대 기업이자 지배적인 경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마츠에 하루지 (Haruji Matsue)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에 실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제도를 사탕수수 산업에 이상적인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NKKK는 초기 몇 년간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 위기까지 맞았지만, 1926년부터 상황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마츠에는 회사의 토지 소유를 티니안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은 로타까지 확장했습니다. 로타에는 사탕수수 공장 한 곳이 있었고, 전체 농지의 약 38%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제2차 세계대전 중 해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이 공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Prewar Japanese Hospital 'Liyo' Songsong Village

송송빌리지 남쪽에는 전쟁 이전에 지어진 일본 병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은 'L'자 형태의 구조로 지어졌으며, 목재로 된 바닥과 지붕은 현재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병원은 당시 로타에서 사탕수수 산업을 운영하던 남양흥발주식회사 (Nanyo Kohatsu Kabushiki Kaisha, 약칭 NKKK)가 자사 노동자들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병원 부지 안에는 병원 외에도 학교 용도로 사용된 건물 두 채가 더 있었으며, 모두 일본 통치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손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에 의한 것입니다.

Bird Sanctuary

Chenchon

로타섬 동부 해안에 위치한 로타 버드 생추어리는 바닷새들이 번식하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바닷새 번식지로 붉은발얼가니새, 흰제비갈매기, 큰군함조 등 여러 조류 종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로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되며 자연 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Peace Memorial

Sabana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일본 제국군의 지역 사령부로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1973년, 로타 주민들과 일본 국민 간의 우호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추모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일본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리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Japanese Tomb

Apanon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타에서 생을 마감한 일본 제국 육군 사이토 대위와 그의 부하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들이 전사한 바로 그 장소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Japanese Tomb Pali'e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타에 목숨을 잃은 일본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German Chapel Patten Gogue

코비니안 신부와 독일 카푸친 수도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11년경 가톨릭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은 독일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몇 안 되는 건축 유산 중 하나로 현재는 산타 로데스 예배당 (Santa Lourdes Chapel)이라고 불립니다.